경계, 침묵, 시차

정근식

1. 김시종선생의 '경계'에 관한 강연과 호소미 카즈유키선생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김시종 선생은 '경계'라는 단어의 서로 다른 발음과 의미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호소미선생의 발표, <일본으로부터 경계를 묻다>는 김시종선생의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이자 평론입니다. 이에 따르면, 김시종선생의 문학은 항상 8.15와 4.3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디아스포라 세계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니이가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그의 삶의 자취를 따라 이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민족성을 철저하게 심화시켜 세계성을 획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적 고투가 필요합니다.

김시종 선생은 그의 자서전 <조선과 일본에 살다>에서 자신의 문학세계에서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스승과 세 명의 친구를 언급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바닥모를 지식을 쌓은" 호소미 가즈유키씨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종 평론집 <재일의 틈새에서>에 실린 호소미 선생의 '강인하고 섬세한 지혜'라는 글은 두 사람의 문학적 애정과 인간적 우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 글에 따르면, 김시종선생이 오사카 문학학교에서 대표 강사로 일할 때, 호소미선생이 그 강의를 들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평생의 동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호소미 선생의 김시종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학계에서 이루어진 김시종 연구도 상당하여 2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움직이는 이중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일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회의의 주제인 경계와 월경, 우리의 삶을 규정한 폭력적 사건들이 만들어낸 침묵과 발화,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차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 경계: 국경과 분경

제가 김시종 시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98년 8월입니다. 4.3 50주년 기념으로 제주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회의에서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 선생과 함께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그는 <광주시편>이라는 시집을 낸 재일 시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가 어떻게 광주를 묘사했을까 궁금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국제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김석범 선생의 입국허가여부였습니다. 그는,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입국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참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고, 그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로 회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실감하지 못했던, '조선적' 교포에게 드리워진 높은 입국 장벽,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는 낭패감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김석범 선생이 회의장에 나타났고, 참가자들은 열띤 박수로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이 허가된 것입니다. 당시 회의장 입구 복도에 있던 축하 화환이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주화는 딱딱하게 경화된 경계 위에 세워진 장벽을 허물거나 낮추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국제회의는 결과적으로 4.3의 역사, 또는 한국의 이행기 정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0년동안 지속된 냉전의 금기가 한꺼풀 벗겨져 나갔으며, 이 회의의 여세를 몰아 4.3 특별법 제정운동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3 특별법 제정운동은 1995년 제정된 광주특별법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인권과 평화를 위한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동아시아 연대라는 말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주 4.3이 처음으로 타이완의 2.28과 만나고, '재일'을 소환했으며, 오키나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도 처음으로 이를 아우르는 '동아시아'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5월, 광주에서 열린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회의의 문화교류회에서 처음으로 김시종선생의 시가 낭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이었는데, 김남주의 '학살 1'이라는 시와 함께, 오키나와나 타이완, 제주, 그리고 일본의 시인들이 만든 작품들도 낭송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홋카이도의 임병택선생 입국이 거부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재연되었지만, 당시에 중요한 인권문제로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원한대로 곧 북한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광주를 떠나던 전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일회성 송환이 아닌 돌아감과 돌아옴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을 희망하였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인권은 동아시아의 냉전을 촘촘하게 짜고 있는 다양한 경계들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경계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이고 다른 하나는 분경입니다. 이들은 개인들에게 소속을 부여하며, 강요하기도 합니다. 분경은 민족적 분단선일 뿐 아니라 진영간 분단선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분경은 제2차 대전의 결과로 처음 나타났는데, 그것이 38선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개의 연속 전쟁, 즉 중국의 내전과 한국전쟁은 이를 변경시키고 연장시켰습니다. 한국의 휴전선과 대만해협의 경계, 더 나아가면 베트남의 17도선이 그것입니다. 냉전은 국경보다 분경을 더 강하고 질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가 가장 강고한 분경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재일'이 복잡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가를 뿐 아니라 남북을 가르고, 여기에 더하여 국가와 당이라는 독점적 폭력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시종선생의 삶을 반추해보면, 조선과 일본, 남과 북, 그리고 남로당과 일본공산당, 조선 로동당 사이의 경계들이 엇갈리면서 지나간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의 문학세계는 이런 경계들로 구획된 세계를 뛰어 넘기 위한 언어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1929년에 태어나 1945년까지 일본어가 강제되는, 언어적 감성까지도 내면화하는 청소년기에 제주와 광주에서 성장했습니다. 유아기의 원산에 대한 기억은 없는 듯합니다. 1945년 8.15부터 1949년 5월 일본으로 피신하기까지 그는 한국어와 함께 자신의 혁신과 혁명을 일치시키는 '꿈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해방 4년간의 짧은 시기의 경험이 나머지 삶을 지배했다고 생각됩니다. 1950년에 일본공산당에 입당했지만, 1950대 중반에 자신을 규정한 과거의 남로당과 현재의 조선노동당, 그리고 일본공산당 간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어와 일본어 사이의 긴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959년 북송의 시작,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도 고뇌를 깊게 하는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그는 총련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떨어져 나왔지만, 그로부터 30년이나 지난 1998년 처음으로 고향 제주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계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뛰어넘음을 통해 또는 그 자체가 해체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김시종은 1945년 해방 직후 부친의 고향 원산으로 귀향하려다 38선 부근에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1959년 재일교포의 북송이 시작되었을 때, 연장된 38선상에 있었던 니이가타로 눈과 발을 옮기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949년 5월,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밀항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경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했던 당이나 단체와 결별한 경험도 있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데는 결단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 경험들은 모두 그의 장편 서사시 <니이가타>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3. 침묵: 창법적 폭력

침묵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는 것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가 피동적 침묵이라면 후자는 능동적 침묵입니다. 검열에 의하거나 발표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피동적 침묵에 해당합니다. 김시종 선생은 1957년에 쓴 '장님과 뱀의 억지문답'이라는 글 때문에 조선총련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그는 표현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1959년 재일교포의 북송이 시작될 무렵 쓴 장편서사시 <니이가타>는 1970년에 큰 결단 끝에 시집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이 시는 파편화된 존재의 서정적 서사여서 난해합니다.
김시종 선생은 <조선과 일본에 살다>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자신의 능동적 '침묵'에 대해 썼습니다. "나는 불과 칠년 전까지도 4.3사건과의 관련을 아내에게조차 숨김없이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입을 굳게 다문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1948년 당시 남로당 당원이었다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일본에 불법 입국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에, 후자는 자신의 일본 체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쉽게 입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6년에 쓴 글이니 칠년 전이면 2009년이었을 것이고, 이는 자신의 일본행 60주년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나는 그의 고백을 읽으면서 4.3은 아직도 무거운 침묵을 동반하는 현재 진행형 질문이라는 것과 함께, 60년이라는 한 번의 순환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 침묵에 균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4.3에 대한 증언은 60년 동안의 구조적 침묵을 깨고 나온 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이나 지속된 깊은 침묵을 만들어낸 폭력을 나는 벤야민의 예를 따라 창법적 폭력, 즉 세계를 질서지운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창법적 폭력은 자신이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정의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실재하며 동시에 일상적으로 재현되는 자연스러운 규범이 되고, 세계를 질서지우는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한낱 웅얼거림이나 헛소리로 전락합니다. 침묵이 지속되면 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창법적 폭력이 1945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를 휩쓸었고, 일본과 오키나와, 만주와 중국대륙, 그리고 대만을 휩쓸었습니다.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냉전분단체제가 만들어내는 침묵을 깨고 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탈냉전이라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는 그 중심의 자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심력이 필요합니다. 그 원심력이 평화운동입니다.
발화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언어는 일본어였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저에게 일제말기의 일본어 강제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일제하의 황국신민 만들기, 특히 일본어 강제의 과정에 내재한 폭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감동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조선학생들이 자기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벌권을 빼앗기고, 두말마다 이를 합산하여 교사의 매질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일본어라는 권력은 직접 체벌을 가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서로 뺨 때리기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단계에 이르면, 폭력은 폭력을 낳고 증오를 낳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전쟁기 학살의 원리를 예감합니다. 사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런 질서에 순응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를 몸에 맡긴 채 포기하는 사람이 출현하면, 그것은 질서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김시종의 시와 평론은 동아시아 냉전 분단체제가 강요하는 구조적 침묵의 틈새로 뿜어져 나오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주에 관한 이야기는 1946년 초부터 시작되어 1947년 3.1절 사건을 거치면서 농밀해지며, 1948년 4.3에 이르면, 숨이 탁탁 막히는 순간들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70년전의 기억이 엊그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가 5.18을 거쳐 4.3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민주화와 탈냉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4.3에 대한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4.3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수동적으로 휩쓸려 희생된 3만명 또는 그가 느낌으로 갖고 있는 5만명의 사라진 목소리들을 떠올렸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면서 한마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들이 김시종선생처럼 생생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4.3의 역사와 문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4. 시차

호소미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초기 작품의 상당수는 만들어진 시기와 발표의 시기가 다릅니다. 그는 1953년 <진달래>라는 동인지를 만들어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1955년에 첫 시집 <지평선>을 발표했습니다. 그 무렵 재일 사회는 북한의 영향으로 '조선의 주체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노선과 박헌영노선의 균열이면서 그가 추종했던 후자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는 '의식의 정형화'를 간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1957년 '양배추밭의 두더지'로 규정되면서 문학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는 1959년 재일교포들에 대한 북송이 시작될 무렵에 쓴 장편 서사시 '니이가타'를 1970년에 출판했습니다, 그에게 <니이가타>는 1945년 경험했던 38선 월경의 좌절을 다시 모색하도록 했지만, 그는 주저했고, 월경을 포기했습니다. 이 시집은 일본어로 출간된 지 44년만에 한국어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그의 대표적 작품인 <광주시편>은 5.18로부터 3년이 지난 1983년 말에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광주에 대한 시가 자신의 청소년기의 광주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집에 실려 있는 '바래지는 시간 속'이라는 시에는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없다"는 자괴감과 함께 "저 멀리 내가 스쳐 지났던 거리"다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시집은 1984년에 한국어로 번역될 수도 있었지만, 까다로운 일본어 문체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고, 2014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어 독자에게 다가오는데 약 30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5.18과 민주화가 1998년 10월의 제주 귀향, 그리고 2003년 국적 취득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소미선생은 김시종 선생의 <광주시편>을 T.S.엘리엇의 '황무지'(1923)와 파울 첼란의 '죽음의 푸가'(1948)에 비견할만한 작품으로 평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못지 않은 세계적 냉전의 시대에 한국에서 발생한 야만적 학살, 그 '언어를 뛰어 넘는 사건'을 시로 표현한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차는 재일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기도 하고 존재와 존재 사이의 소통에 있기도 합니다. 시차는 작품을 쓰는 것과 출판하는 것 사이에, 그리고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의 시선집 <경계의 시>는 2005년에 출판되었는데, 2008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평론집, <재일의 틈새에서>는 약 30년의 시차를 두고 2017년에 한국어로 발간된 것에 비해 그의 자전, <조선과 일본에 살다>는 일본어 출간된 지 1년만인 2016년 한국어 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는 탈냉전과 한반도 차원에서는 탈분단,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국내적으로는 민주화가 진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동시에 그에 대한 학문적 문학적 관심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시종문학을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을 덧붙였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문헌

김시종(윤여일 역), 2016, 『조선과 일본에 살다 : 재일시인 김시종 자전』, 파주 : 돌베개.
김시종(윤여일 역), 2017, 『재일의 틈새에서』, 파주 : 돌베개.
김시종, 2000, 민족문화의 국제화를 지향하여: 나의 재일 (在日) 조선사, 『일본학』, Vol.19, pp.368-377.
김시종(유숙자 역), 2008, 『경계의 시』, 소화.
김시종(곽형덕 역), 2014, 『니이가타』, 서울 : 글누림.
김시종(김정례 역), 2014, 『광주시편』, 서울 : 푸른역사.
김시종(곽형덕 역), 2018, 『지평선』 서울: 소명출판.

문경수 편(이경원, 오정은 역), 2007,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 김석범, 김시종』, 제주 : 제주대학교 출판부. (951.071 G425n 2007).
재일에스닉잡지연구회(옮긴이), 2016. 『진달래 가리온(1~5권) - 오사카 재일조선인 시지』, 지식과교양.

가게모토 츠요시(影本剛), 2018, 서정, 생활의 깊이에서 연대로, 『작가들』, Vol.65, pp.163-168.
고명철, 2014,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장편시집 『니이가타』의 문제의식 -분단과 냉전에 대한 “바다”의 심상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Vol.38.
김계자, 2015,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밤을 기다리는 노래,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pp.135-140.
김계자, 2016, 조선과 일본에 사는 시인 김시종 - 장편시집 『니이가타』에 표현된 `재일`의 의미, 『비교문화연구』, Vol.45.
김응교, 2008,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계보, 1945~1979: 허남기, 강순, 김시종 시인, 『인문연구』, Issue 55, pp.327-356.
남승원, 2015, 김시종 시 연구 - 탈식민적 전략으로서의 공간 탐구, 『이화어문논집』, Vol.37, pp.97-116.
남승원, 2016, 김시종 시의 공간과 역사 인식 -제주에서 니이가타(新潟)까지, 『영주어문』, Vol.32.
李英姬, 2017, 고통의 문학적 재현 : 김시종의 원폭 관련 시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Vol.77, pp.265-282.
심아정, 2015, 김시종(金詩鐘)의 시(詩)세계와 감성의 정치 - ‘우리는 모두 자이니치’라는 불가능한 동일시를 향하여, 『일본학연구』, Vol.47, pp.129-155.
오창은, 2010, 경계인의 정체성 연구 -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시 세계, 『어문논집』, Vol.45,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pp.37-59.
유숙자, 2002, 민족, 在日 그리고 문학 - 在日 詩人 김시종(金時鐘)의 시세계, 『한림일본학』, Vol.7, pp.93-107.
이동진, 2017, 김시종과 서클시지『진달래』Ⅰ ー 정치와 시 사이, 『사회와 역사』, Vol.116.
이진경, 2018, 어긋남의 공간과 김시종의 시적 사유, 『작가들』, Vol.65, pp.242-274.
이한정, 2011, 김시종과 일본어, 그리고 '조선어'(金時鐘と日本語、そして「朝鮮語」), 『현대문학의 연구』, Vol.45.
장세진, 2012, 트랜스내셔널리즘, (불)가능 그리고 재일조선인이라는 예외상태: 재일조선인의 한국전쟁 관련 텍스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Vol.157.
하상일, 2009,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김시종 연구, 『한국언어문학』, Vol.71, pp.515-535.
하상일, 2010,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Vol.56, pp.71-101
하상일, 2017, 김시종과『진달래』, 『한민족문화연구』, 2017, Vol.57.
하상일, 2019, 김시종의 '재일'과 제주 4 · 3의 시적 형상화1, 『한민족문화연구』, Vol.65.
호소미 가즈유키(동선희 역), 2013,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종』, 어문학사.
호소미 카즈유키, 2010, 디아스포라를 시인으로 사는 것 -김시종의 최신시집『잃어버린 계절 - 김시종 사시시집』을 읽다, 『한국문화기술』, Vol.10.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y 29-31, 2019,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